



NEWS LETTER



[한국음반산업협회 뉴스레터] ●●●
신규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신청 저작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2019. 02. 01. [제 248 호]

항아리 속에 든 한 개의 동전은
시끄럽게 소리를 내나,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 탈무드 -

공지사항



풍성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일동-

❑ “음반제작자” 여러분. 제작하신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하셨나요?

〈미분배 보상금 신청 안내〉

- 홈페이지(<http://www.riak.or.kr>)에 접속하셔서 신작사용료 및 보상금 등에 대한 지급현황을 확인하시고, 신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드립니다.
- 아이디 및 패스워드 발급/확인 및 등록여부 문의 : 콘텐츠팀 이진희 사원(02-3270-5933)

❑ 분배 일정 안내

- 2018 년 12 월분 신작사용료 / 2018 년 4 분기 방송보상금 분배 예정 : 2019 년 2 월 25 일(월)
- 분배 관련 문의 : 신작사용료(정산분배팀 이정민 과장, 02-3270-5961)
방송보상금(정산분배팀 우민선 사원, 02-3270-5963)
다음송/공연보상금(정산분배팀 박지혜 사원, 02-3270-5962)

❑ 가요심의 접수

-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는 음반제작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심의(KBS) 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심의 접수 문의 : 콘텐츠팀 김정수 사원(02-3270-5986~7)

❑ 한국음반산업협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최근 소식과 신보 및 컴필,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facebook) 주소 : <https://www.facebook.com/riakmusic>

❑ 협회 주요 소식

- 협회 홈페이지(www.riak.or.kr)에 방문하시면 협회의 주요 경영공시 사항 및 회원 로그인을 통한 분배금액(신작/보상금)확인 및 등록앨범조회 등 회원님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클리핑

- ❑ 향기와 맛은 저작물로 보호받을까 (2019. 01. 17. 조선 pub)
- ❑ 송희경 "대중음악 한정 방송 의무편성, 이제 모든 음악에 길 열려" (2019. 01. 22. 공감신문)
- ❑ 스트리밍 경제학? "노래가 짧아졌다" (2019. 01. 23. 머니투데이)
- ❑ 직거래로 중개비용 없고 불법유통 막아 일석이조... 음악·웹툰 업계도 '바람' (2019. 01. 23. 디지털타임스)
- ❑ [시선+]넷플릭스와 애플뮤직이 'K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2019. 01. 24. 한국경제)
- ❑ '표절 논란' 법정 가는 '아기상어'...쟁점은 저작권 침해 (2019. 01. 25. SBS 뉴스)
- ❑ [이코노미조선] 음악·영화로 영감 얻는 기업인...아이팟도 영화에서 따왔다 (2019. 01. 26. 조선비즈)
- ❑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 한국이 걱정되는 이유 (2019. 01. 28. 조선 pub)
- ❑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연장을 위해 만들어진 '소니보노 저작권 연장법' (2019. 01. 28. 시선뉴스)
- ❑ [1957년 오늘] 저작권법 공포 (2019. 01. 28. 영남일보)
- ❑ 5G 시대 앞두고 아이돌 음악계-이통사 물밑협업 뜨겁다 (2019. 01. 31. 동아일보)
- ❑ 일본 음반 판매점은 한류가 살린다 (2019. 01. 31. 프레스맨)

분리배출표시제도 관련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7월 01일부터 CD 케이스 등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반제작자에게도 분리배출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성수지포장재를 사용한 CD 케이스 및 포장 필름(바코드, 라벨 등이 부착된 경우에 한 함) 등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며, 법률 위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법률에 관하여 회원님들의 확인을 바라오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 바랍니다.

- 분리배출표시제도 : 한국환경공단(032-590-4205)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분담금) : 한국환경공단(032-590-4199)

“음반 표지” 이미지 및 서체 사용에 대한 안내

협회는 최근 신탁계약 및 보상등록 음반의 표지에 사용된 이미지(사진, 그림 등) 또는 서체(폰트)와 관련하여 해당 이미지 또는 서체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업체 또는 대리인(법무법인)]들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수신하였으며, 해당 업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라이선스 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원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시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디자인을 의뢰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여 음반의 표지를 제작할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피해를 회원님들께서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점차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음반 표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또는 서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음반 표지의 저작권 침해가 의심·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인 사용중지(온라인의 경우 서비스 중지)와 함께 사용허락 받은 이미지, 서체 등이 사용된 음반 표지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의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문업체에 음반 표지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업체가 허락받은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음반 표지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콘텐츠팀(02-3270-5936), 기획법무실(02-3270-5916)

테이프 복각 음원의 서비스 관련 안내

회원님께서 과거에 테이프의 음원을 복각하여 MP3 음원 형태로 협회에 등록하여 주신 음원의 온라인 서비스 반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과거 회원님께서 일부 테이프의 음원을 MP3 파일로 등록하여 주신 앨범 중, 테이프의 A 면 · B 면에 있는 모든 곡을 하나의 MP3 파일로 전달해 주신 음원에 대하여, 테이프의 A 면 · B 면의 곡을 트랙별로 구분하여 CD 또는 MP3 파일 형태로 복각하여 재등록 해주시면 온라인 사이트 (멜론, 지니, 엠넷, 소리바다, 벅스 등)에 재등록해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재등록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서는 CD 또는 MP3 로 복각하시어 협회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o 콘텐츠팀 정정수 팀장(02-3270-5931), 하수정 주임(02-3270-5936)

한국음반산업협회(RIAK) 신규 신탁음원



conveyor sounds
maslips & corin
열어줘

La-A

[MasLips “열어줘”]

maslips 와 corin 의 콜라보 프로젝트 싱글 3
‘열어줘’

보컬 La-A 특유의 끈적끈적한 보이스로 사랑을 애기하는 Soul R&B 감성의 La-A! 가 3 번째 프로젝트로 참여하였다.

conveyor sounds 유튜브 채널에서 커버 뮤지션으로 활동중임과 동시에 마스립스&코린 프로젝트에서 메인 보컬이자 작사를 맡고 있는 La-A!

이미 마스립스&코린의 앨범에서 일렉트로닉 장르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그녀는 이번 앨범을 통해 전혀 다른 느낌의 스타일로 원래 그녀가 추구하던 소울 R&B 장르의 ‘열어줘’를 확실히 소화해 내었다. 이번 ‘열어줘’를 통해서 확실한 그녀만의 색깔을 느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진리 “Sweater”]

작곡가 '서진리'의 첫번째 싱글 [Sweater]

피아노 연주를 즐기는 작곡가 '서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일상에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쓸쓸한 감정이 몰려올 때 나를 감싸주는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음악. 추운 날에 음악으로 따뜻해질 수 있는 음악이 되고자 'Sweater'라는 이름의 작품으로 그녀의 첫 싱글을 발매한다.

누구나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잔잔한 뉴에이지 피아노 연주곡 'Sweater'에 귀 기울여보자.



[헤화동소년 “겁쟁이”]

헤화동소년의 스물 두 번째 이야기

싱어송라이터 헤화동소년이 오는 1월 31일 12시 정오에 새 앨범 <겁쟁이>를 발매했다.

2019년 1월 겨울과 잘 어울리는 발라드 앨범 '겁쟁이'는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 사랑하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상처 받을까 봐 마음을 열기를 주저하는 내용으로 가사들을 풀어냈다. 모던한 발라드 곡으로 밴드구성에 스트링이 더해져 감정선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 널 사랑해서 행복할 뿐인데 왜 나는 이렇게 너의 작은 마음조차 안아주지 못하고 내 맘만 알아봐주길 바라는 겁쟁이야"

헤화동소년은 2017년 3월부터 「헤화동소년 다이어리」라는 타이틀로 꾸준히 매달 한 곡씩 앨범을 발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헤화동소년 다이어리」 프로젝트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들을 헤화동소년이 직접 작곡을 하고 가사를 쓰는 것은 물론, 악기 녹음 및 편곡과 믹스 마스터링까지 전부 그가 직접 해내고 있다.

- 본 뉴스 클리핑은 매주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하므로 협회는 본 뉴스 클리핑으로 발생하는 내용상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 클리핑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협회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 클리핑은 월 2 회 E-Mail 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수신을 추가로 원하시는 분은 news@riak.or.kr 로 신청 바랍니다.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news@riak.or.kr 로 회신을 주시면 수신거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